

兩湖都巡撫營 指揮部와 日本軍 간의 갈등

신 영 우*

1. 머리말
2. 申正熙의 兩湖都巡撫使 선임과 巡撫營 幕下 구성
3. 申正熙의 對東學農民軍 認識 變化와 「巡撫使 榜示文」
4. 巡撫營 先鋒 李圭泰와 일본군 간의 갈등
5. 맺음말

1. 머리말

1894년 9월 22일¹⁾ 兩湖都巡撫使에 扈衛副將 申正熙(1833~1895)가 임명되었다. 9월 22일은 전봉준이 재봉기를 결정해서 삼례집결령을 내린 9월 10일경부터 12일이 지난 때였고, 동학 교주 최시형이 9월 18일 기포령을 내린 이후 4일만의 일이었다. 이 날부터 12월 23일까지 81일 간 신정희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최고책임자인 순무사로 활동하였다.

신정희는 高宗代의 대표적인 武將이었다. 조선의 武官은 1894년에 여러 차례 전례 없는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했다. 최대의 사건은 일본군이 경복궁

* 충북대 사학과 교수

1) 이하 날짜는 음력으로 표기한다.

을 기습 점령한 것을 막지 못한 것이었다. 국왕의 보위를 책임진 호위부장이었던 將臣 신정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고종이 경복궁을 침입한 일본군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상태를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일본군이 경군 병영을 기습하여 무장해제를 시킨 것이었다. 광화문 바로 앞에 있던 장위영은 대항도 못해 보고 일본군에게 제압당해 모든 무기를 빼앗겼다. 왕조를 수호하는 정예군이 議政府와 六曹를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병영 경계에도 실패해서 단 한 차례의 기습에 궤멸된 책임은 1차로 군사지휘관들이 져야하는 일이었다.

셋째는 조선 영토 안에서 청군과 일본군이 전쟁을 벌이는 것을 또한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산 앞바다에서 일본 해군이 청의 군함을 공격한 해전을 시작으로 성환과 평양에서 일본 육군이 공격전을 벌인 것은 조선 정부를 무시하는 작태였다. 조선의 무장들은 청일 양국의 군대가 국토를 유린하며 전쟁을 전개하는 사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조선 관군은 청일 양국군이 영토 안에서 벌이는 전쟁을 통해 자국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군대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넷째는 농민들로 구성된 동학농민군의 봉기조차 진압하지 못했다. 국정의 문란과 관리들의 부패가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무장봉기한 농민군을 경군 정예병이 해산시키지 못한 1차 책임도 역시 무장들이 져야하는 것이었다. 신식무기로 무장한 경군 지휘관인 洪啓薰은 동학농민군의 세력에 눌려서 淸軍의 借兵을 건의하기까지 하였다. 고종이 청군을 차병하자고 해도 조선의 무관은 그 후유증을 고려해서 적극 반대해야 했는데 오히려 현지 지휘관이 차병을 요청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 결과 청군이 파병되고 잇달아 일본군도 들어와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일본군은 경복궁 침범 후 강제로 동맹조약을 체결해서 청과 전쟁을 벌이는데 조선 정부의 협력을 강요하였다. 李斗璜과 같은 조선의 일부 무관은 일본군을 도와 전투 현장인 평양까지 가서 '형세를 살피거나 敵情을 염탐'하기도 하였다. 조선의 관군 지휘관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일본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기현상이 일어난 것이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에게 타격을 준 것은 오히려 동학농민군이였다. 경상도와 충청도의 동학조직은 부산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일본군 병참지원을 방해하거나 군용전선선을 절단하였다. 더 나아가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 즉시 반일전쟁을 준비하였다. 9월에 들어와서 동학농민군은 전국에 걸쳐 전면 재봉기하였다. 전라도 중심의 남접농민군은 물론 동학교단이 내린 기포령에 따라 전국에서 무장봉기한 북접농민군도 합세하였다.

일본정부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로 결정하였다. 청일전쟁 지휘부인 히로시마 대본영은 병참선로의 수비병과 서울 용산의 주둔병에게 동학농민군 진압을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전담할 후비보병 제19대대를 증파하였다. 동시에 강압적으로 조선의 관군이 일본군의 작전에 협조하도록 하였다.

조선정부도 재봉기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로 결정하였다. 수도를 지키던 경군을 충청도와 전라도로 파견하는 동시에 각 병영과 감영의 군대를 동원하였다. 경군 파견대는 통위영과 장위영 그리고 경리청 병대가 선정되었고, 일본군이 훈련한 교도중대 병력도 포함되었다. 일본은 교묘한 술책으로 관군의 지휘권을 후비보병 제19대대장 미나미 고시로 소좌가 장악하도록 하였다. 조선정부는 국왕이 인질로 된 상황 속에서 일본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경군 각 병대를 각지에서 지휘한 것은 일본군 장교들이였다.

將臣 신정희가 양호도순무사에 임명된 것은 바로 이러한 때였다. 양호도순무영을 설치하고 중군과 종사관 등 막료를 임명했지만 신정희의 처지는 곤혹스러웠다. 모든 관군은 체제상 도순무영의 절제를 받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 경군 파견대는 일본군 지휘관에게 장악되어 있었다. 경군의 무기는 경복궁을 침범당한 날에 일본군에게 모두 빼앗겨 진압군으로 파견된 병대는 그 일부를 넘겨받아 사용하였고, 탄환은 일일이 통제를 받았다.

더욱이 경군 파견대는 일본군과 동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후비보병 제19대대는 동료와 서로 그리고 중로분진대의 3대로 나누어 서울에서 삼남과 강원도지역으로 남하했는데 그에 배속되어 일본군 장교의 지휘를 받으며

활동해야 했다. 양호도순무사 신정희는 독자적인 지휘권을 갖지 못하고 일본군과 동행하는 경군의 보고에 상황과약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긴급상황에서 양호도순무사의 명령에 따라 경군 파견대의 행선지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역시 일본군의 통제 아래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호도순무영과 일본군의 관계는 좋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양호도순무영은 일본군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진압해야 하는 곤욕스러운 지경에 처해 있었다. 이 글은 1894년 양호도순무영과 일본군 간에 일어난 갈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먼저 양호도순무사로 선임된 신정희와 그의 가계 배경, 그리고 순무사의 위상에 대해 알아본 다음 도순무사 신정희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순무사 방시문」의 성격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에 살펴볼 양호도순무영 선봉 이규태와 일본군 장교 간 갈등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당시 일본군과 갈등을 보여주는 기록은 매우 조심스럽게 쓴 일부의 관찬 자료나 개인자료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일부 확인된 기록만을 근거로 해서 갈등 상황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다.

2. 申正熙의 兩湖都巡撫使 선임과 巡撫營 幕下 구성

1) 將臣 申正熙의 兩湖都巡撫使 選任

신정희를 양호도순무사로 선임한 까닭은 9월 26일자로 내린 교서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²⁾ ‘宿將의 뛰어난 후예’에게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책을 맡긴다는 의미가 이 교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2) 『승정원일기』 1894년 9월 26일자. 이 교서는 經筵廳 侍讀 洪顯哲이 지어 올린 것이다.

開府하고 군사를 통솔하는 의리를 본받아 편의에 따라 다스리게 하니 兩湖의 중대한 임무이고, 都元帥에 상응하는 품계로 巡撫의 직임을 簡選하니 재상의 높은 반열이다. 그대는 직임을 공경히 수행할지니,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도다. 돌아보건대, 이 新營의 설치는 실로 匪類의 소요에서 연유하였다. 州郡에 못된 백성들이 많으니 아, 어쭙잖게 날뛰는 무리로구나. 하지만 京師에 禦侮하는 곳이 있으니, 북소리 잦아들을 어찌하리오. 태평성대를 누린 지 오래이니, 어찌 차마 백성의 離叛을 말하랴. 의연히 성루에서 지휘하여 밤을 지새우는 나의 근심을 나눌 자 누구인가. 卿은 世家의 훌륭한 재목이며 宿將의 뛰어난 후예이다. 扈衛副將으로서 일찍부터 명망을 드러낸 것이 얼마이더냐. 전에 中營을 맡았을 때 대단한 공적을 쌓은 것을 가상히 여기고 있다. 이에 경에게 行 兩湖都巡撫使를 제수하노니, 경은 은혜로운 명에 공손히 보답하여 신묘한 계책을 펼지어다. 列郡을 安撫할 방도를 강구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먼저 錢穀을 넉넉히 쌓아야 할 것이고, 양호를 진정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만큼 무력을 쓰지 않고 굴복시키는 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아, 오랑캐를 칠 方略을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신중함을 견지한 趙充國을 익혀야 할 것이고, 旌旗의 精彩를 새롭게 바꾸고자 한다면 의당 엄격함을 숭상한 李光弼을 귀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는 것이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이 교서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은 ① 양호도순무사의 지위와 위상, ② 양호도순무영 설치의 연유, ③ 도순무사 신정희에 대한 신뢰, ④ 도순무사의 책무 등에 관한 것이다.

양호도순무사의 임무는 '匪類'인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列郡의 按撫에 있고, 이를 위해 순무영을 설치하여 軍事를 통솔하면서 便宜에 따라 다스리라고 명시하였다. 진압군을 통솔하는 지휘부를 新營으로 구성하고 便宜에 따라 다스리라는 말은 형편에 따라 군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권한을 서울 도성에 위치해서 활동할 도순무사에게 부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군사권의 편의 행사는 정부에서 군사활동을 간여할 수 없는 먼 지역에 파견할 원정군 지휘관에게 부여하는

권한이었다.

이는 당시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조치였다. 전국에 걸쳐 수많은 농민들이 봉기하고 있었고, 여러 군현에서 관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호도순무사는 재량권을 부여해서 진압을 하는 한편 각 군현을 관치 질서로 회복시키는 임무를 맡도록 한 것이었다.

양호도순무사는 都元帥에 상응하는 품계라고 하였다. 도원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무를 통괄하던 임시 군사기구의 책임자'였는데 조선에서는 성종과 선조·광해군·인조 그리고 영조대에 도원수를 임명한 적이 있었다.³⁾ 도원수는 직함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군사를 총지휘하는 최고의 군권 장악자는 아니었다. 특정지역이나 임무를 의미하는 명칭이 덧붙여졌던 것이다. 西征都元帥나 北征都元帥 그리고 漢南都元帥나 諸道都元帥와 같이 특정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군사를 지휘하는 임무를 맡았다.

양호도순무사의 兩湖는 호남과 호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라도와 충청도는 동학도들의 활동 때문에 정부에서 주시했던 곳이었다. 사교로 탄압하는 대상이었던 동학이 박해를 면하기 위해 포교의 공인을 요청하는 집단행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활동지역을 양호에 한정시킨 직함을 부여했지만 양호도순무사는 전라도와 충청도의 두 지역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동학농민군이 1차 봉기할 때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진압에 나선 洪啓薰의 직함은 兩湖招討使였다. 충청도의 동학농민군은 일찍 흩어져서 초토사가 충청도에서 순회할 필요는 없었지만 전라도의 동학농민군은 세력이 크고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주로 전라도에서 머물러 있었다. 양호도순무사는 서울의 순무영에 있으면서 두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동학농민군 진압을 지휘하는 권한을 갖고

3) 『성종실록』 1479년(성종 10) 11월 18일, 1491년(성종 22) 4월 1일. 外敵을 대상으로 한 도원수 임명 사례는 성종과 선조대에 있었다. 1479년(成宗 10) 尹弼商이 西征都元帥가 되어 명을 도와 建州衛 여진을 정벌한 것과 1491년(성종 22) 울적합(兀狄哈)의 침입으로 許琮이 北征都元帥가 되어 군사 2만을 거느리고 두만강을 건너 遠征을 한 것이다. 또 임진왜란의 발발 이후 金命元이 팔도도원수로서 한강 및 임진강 방어에 노력했고, 權標은 행주대첩의 공으로 도원수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인조대에는 도원수 張晩이 이괄의 반란군을 격파하였고, 沈器遠과 金自點 등이 도원수에 임명되었다.

있었다.⁴⁾

순무사는 군권을 부여받아 활동하는 임시 직함이었다. 군사활동이 활발했던 조선전기에는 변방의 방어를 위해 순무사를 임명해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영조 연간에는 四道都巡撫使에 吳命恒⁵⁾, 南漢巡撫使에 金東弼⁶⁾이 임명되어 李麟佐의 난을 진압한 바가 있었다. 영조대에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 순무영을 설치한 것은 이후 內憂外患이 일어날 때 대처하는 선례가 되었다. 1811년 평안도의 洪景來亂 진압을 위해 兩西巡撫營이 설치되었는데 순무사는 李堯憲이었다.⁷⁾ 고종대에 들어와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범하여 위기가 조성되자 畿輔巡撫營을 설치하고 도순무사에 李景夏를 임명해서⁸⁾ 프랑스군의 내륙 침범에 대비하였다. 1894년에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하자 兩湖都巡撫營을 세웠는데 이는 다시 “영조 때의 故事에 따라 순무영을 설치”한 것이었고, “당대에 문무를 겸비한 인재를 뽑아 그 職任을 채웠다.”⁹⁾

고종의 교서에서는 도순무사 신정희를 “都元帥에 상응하는 품계로 巡撫의 직임을 簡選하니 재상의 높은 반열”이라고 하였다. 종2품 이상 관직자를 재상으로 지칭하였는데 그 반열에 있으면서 순무사의 직함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世家の 훌륭한 재목이며 宿將의 뛰어난 후예’인 동시에 일찍부터 드러낸 명망으로 扈衛副將이 되었고, 中營인 훈련대장을 맡아 국왕의 호위 및 궁성과 도성의 경계에 공적을 쌓았다고 하였다.

신정희는 고종대의 대표적인 무장이었다. 교서에서 “卿은 世家の 훌륭한 재목이며 宿將의 뛰어난 후예이다. 扈衛副將으로서 일찍부터 명망을 드러낸 것이 얼마이더냐.”라고 표현한 구절에서 그 위상이 잘 드러난다.

신정희는 19세기 순조·헌종·철종·고종대에 將臣을 역임해온 武官 閣

4) 『일성록』 1894년 9월 24일 “命匪類剿撫 并令巡撫使辦理 議政府啓言 兩湖匪類近復蔓延於嶺南關東畿海等地云 各處勦撫事宜并令巡撫使請一切辦理 允之”

5) 『영조실록』 1728년 3월 17일자.

6) 『비변사등록』 1728년 3월 19일자.

7) 『巡撫營謄錄』 1812년. 奎古4250-66.

8) 『巡撫營謄錄』 1866년. 奎15063; 『고종실록』 1866년 9월 8일자.

9) 「兩湖巡撫先鋒將李公墓碑銘并序」

族가계에 속한 武將이었다.¹⁰⁾ 증조부인 鴻周(1772~1829)는 순조 년간에 좌우포도대장, 평안도·전라도·함경도 병마절도사 삼도통제사 배왕대장 어영대장 훈련대장과 병조참판을 역임하였고, 아버지인 櫛(初名 觀浩, 1811~1884)은 철종과 고종대에 고위 무관직을 지낸 將臣으로서 한성판윤 형조판서 공조판서 병조판서 등 요직을 역임하고 무관으로 오르기 힘든 정1품 보국숭록대부에 오른 인물이다. 흥선대원군과 고종의 신뢰를 받아 국방을 강화하는 사업에 앞장서면서 병인양요 직후의 군비강화책을 제시한 『民堡輯說』 등 국방론을 제시한 병서를 저술하였다.¹¹⁾

신정희는 현종대에 무관으로 입사하여 고종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경력을 쌓았는데 특히 고종은 公事에 엄격한 신정희를 신뢰하여 將臣으로 발탁해서 御營大將 禁衛大將 壯禦大將 前營使 後營使 統衛使 등 중요 병영을 이끌게 하였다.¹²⁾ 신정희의 관직에서 두드러진 것은 포도대장이었다. 고종은 좌우포도대장을 번갈아 맡겨서 사회 동요로 인한 각종 불법 행위를 막도록 했다. 한성판윤과 형조판서 공조판서에 이어 국왕경호를 책임진 호위부장으로 겸직하며 內務督辦으로서 軍務를 담당하기도 했다.¹³⁾

2) 巡撫營 幕下 구성

순무사를 보좌하며 실무를 총괄하는 순무영의 中軍에는 9월 24일 許璉(1853~1932)이 선임되었다. 허진은 9월 3일 경무사에 임명되어 도성의 치안과 감옥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무청이 순무영의 활동에 일정하게 참여하게 되었다. 좌우포도청을 폐합해서 설치한 경무청은 사회기강을 세우는 사법기관으로서 '匪類의 소요'를 막는 고유의 업무를 순무영의 지휘

10) 장필기, 「鎭川 논실의 平山申氏 將臣閥族家系와 申鴻周」 『역사와 담론』 57집, 호서사학회, 2010.

11) 최진욱, 「申櫛(1811~1884)의 생애와 활동」 『역사와 담론』 57집, 호서사학회, 2010.

12) 「每日申報」 1932년 1월 12일자 4면기사. 雨田生, 「申年의 申氏」 “(三) 平山人이요 觀浩의 子라 儒學이 兼備하여 高宗戊寅에 大將을 任命하여 十七年間 國家의 重鎮이 되었다” 1878년 御營大將을 시작으로 여러 군영의 대장을 역임한 신정희는 민간에 將臣과 포도대장으로 刻印된다.

13) 신영우, 「將臣 申正熙의 仕宦 이력과 활동」 『역사와 담론』 57집, 호서사학회, 2010.

아래 수행하게 된 것이다.¹⁴⁾

허진은 순무사 신정희 보다 20년 연하로서 유력한 양친 허씨 무반 집안의 일원이었다. 고조부 許任은 병사와 통제사를 역임했으며, 조부 許槩(1798~1866)는 경상좌도, 함경도의 병마절도사와 삼도수군통제사를 거쳐 좌변포도대장과 금위대장을 지냈다. 대원군집권기에는 공조판서를 지내고 어영대장으로 景福宮 營建都監의 제조가 된 후 판의금부사와 도총관에 올랐다.¹⁵⁾

아버지 許燿¹⁶⁾은 철종대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와 전라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하고 고종대에 들어와 남병사로 실적을 쌓아 1868년에 포도대장, 1872년에는 병조참관에 올랐다. 즉 대원군 집권기에 발탁되어 주요 요직을 역임했던 무반이었던 것이다.

허진의 장인인 任商準 역시 명문 무반가인 豐川 임씨의 일원이었다. 그는 고종대에 들어와서 철원부사 겸 방어사, 공충도 수군절도사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다음 1871년에 한성우윤을 거쳐 어영대장으로 등단한 뒤 형조판서를 지냈다. 그 후 훈련대장과 한성판윤·도총관, 우변포도대장·형조판서를 역임하고 임오군란 직후 총융사·지삼군부사·친군전영사·내무협판·공조판서를 거친 다음 1894년에는 춘천우수로 부임하고 있었다. 허진은 외가와 처가까지 명문 무반가에 속한 집안으로서 대원군 집권기에 발탁되어 활동한 주요 인물 중 하나였다.

순무영의 실무 책임을 맡은 종사관에는 강화학과의 일원인 鄭寅杓(1855~1935)가 임명되어 활동하였다.¹⁷⁾ 정인표의 仕宦은 늦은 편이었다.

14) 그러나 11월 17일 중군과 경무사 직무가 서로 방해된다고 해서 경무사 직무를 그만 두게 된다. (『일성록』 1894년 11월 17일 “璫以警務使職務相妨啓請改差也”)

15) 『2007년도 조사보고서 II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유서』, 886~892쪽

16) 허습의 증조는 兵使 許任이고, 조부는 許濶이며, 부친은 許槩이다. 1844년(헌종 10)에 宣傳官이 되었고, 1845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김해부사 파주목사를 지내고 경상좌도수군절도사 전라도병마절도사 등을 거쳐 1868년(고종 5)에는 좌변포도대장이 되었다.

17) 『일성록』 1894년 9월 24일. 이때 黃章淵과 함께 종사관에 임명되었으나 당시 외지에 있었기 때문에 전교리 洪承運이 대신 임명되었다. 하지만 홍승운도 순무영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순무영이 존재한 전기간 동안 종사관으로 주로 활약한 사람이 정인표였다.

1892년 37세에 문과에 합격해서 홍문관 부교리를 거쳐 장위영 軍司馬와 兵曹正郎 그리고 문신 겸 宣傳官을 지냈다. 1894년 7월에는 남산 노인정 회담이 열릴 때 교정청 관원으로 이에 관여하며 일본 공사의 내정간섭 현장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9월 내무아문 주사와 경연청 侍講으로 있을 때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임시지휘기구인 순무영의 종사관에 임명된 것이다.

정인표의 향리인 충청도 진천은 少論의 班鄉이자 강화학파의 한 근거지였다.¹⁸⁾ 汶園 洪承憲(1854~1914), 綺堂 鄭元夏(1855~1925), 淵齋 鄭閔朝(1856~1926), 溥齋 李相高(1870~1917) 등 少論의 才士들이 초평과 덕산에 모여 살면서 선호하여 조정에 出仕하여 요직을 맡아왔다.¹⁹⁾ 정인표는 이들 중 가장 늦은 나이에 入仕해서 갑오년에 순무영 종사관으로 순무사 신정희를 보좌하게 된다.

홍승헌과 정원하는 일본군이 경복궁을 기습 점거한 이후 내부협판과 사헌부 대사헌을 사직하고 강화도에 들어가서 寧齋 李建昌(1852~1898) 耕齋 李建昇(1858~1924) 형제와 더불어 양명학을 강론하며 있었다. 이들 소론계 관료들이 일본세력에 빌붙어서 개혁을 추진하는 개화파들에게 적대감을 보였다.

정인표와 순무사 신정희는 同鄉이었다. 진천 이곡면 논실이 신정희의 鄉里였고, 초평면 영구리에는 정인표의 집이 있었다. 신정희의 논실 집에는 晤堂 李象秀(1820~1882)와 壺山 朴文鎬(1846~1918)와 같은 인근의 才士들이 출입하였다. 정인표가 논실 신정희 저택을 출입했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견창 시국관을 함께 하는 동지들인 梅泉 黃玆(1855~1910), 滄江 金澤榮(1850~1927), 海鶴 李沂(1848~1909) 등 강화학파 인사들이 서울 정동의 輔國宅과 논실 저택 등지에서 자주 만나서 시를 짓거나 술잔을 나누었던 것으로 추정하면 출입했을 가능성이 많다. 보국택은 신정희의 아버지인 신헌 대장이 정1품 품계를 받았기 때문에 붙여진 택호이다.

18) 閔泳珪, 『江華學 최후의 광경』 『回歸』 3. 1987(『江華學 최후의 광경』 西餘文存 其一, 又半, 1994, 收錄)

19) 신영우, 「한말 일제하 충북 진천의 유교지식인 연구」 (『광무양안과 진천의 사회경제 변동』, 혜안, 2007 수록)

3) 巡撫營 指揮部の 反日 분위기

朝鮮王朝의 保衛武力인 무관들은 6월에 일본군이 서울에 대거 진주해서 주둔하고 한강 곳곳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²⁰⁾ 전혀 대응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더구나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해도 속수무책이었고, 경군 각 병대도 기습당해서 거의 도망하고 무기를 모두 탈취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²¹⁾ 서울 도성에 들어온 일본군 5사단의 위력에 조선군은 압도당해서 대항할 의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일본군은 경복궁 인근 장위영 병영을 비롯해 각 병영을 장악하고 있었고 대궐 내에서 근무하는 관원들도 武監 몇 명 외에는 한 가지로 모두 쫓겨나고 일본군이 들어차 있는 형편이었다.²²⁾ 무관들은 이 사태에 분개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대항할 방도도 없었을 뿐 아니라 용산에 들어온 일본군의 규모를 알게 되면 선불리 대응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이 때 무관 중에도 일본군과 협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杞園 趙義淵(1856~1915)이었다. 그는 무과 급제 후 선전관 훈련원 판관 등 무관의 주요 실직과 회천군수를 역임한 인물이었다. 1887년 신식 무기 시찰과 무기 구입하기 위해 1996년부터 중국 상하이와 홍콩 그리고 일본 오오사카와 도쿄를 둘러보고 일본의 포병공장을 다녀왔는데 이 때 중일 양국의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온다. 1888년 연무공원 參理事務를 지내고, 1891년에 경상도 광무감리로 있던 조희연은 1894년 동학농민군 봉기시 진압군의 출병과 군수물자 보급을 지원하였다. 일본군이 평양의 청군을 공격하기 위해 조선정부와 공수동맹을 강제로 맺고 조선군의 출병을 요구하자 “그가 분발하여 禹範善, 李斗璜, 李範來 등을 先發隊로

20) 『續陰晴史』 卷7 甲午 6월. “日兵來者爲一萬五六千 日增其數 環京城內外 屯軍防守 京江亦處處守之 來往行人 必盤詰放送 內轎亦揭簾看驗 詢其姓氏 以是都人疑懼”

21) 위 자료, “二十一日 日本兵入闕 圍繞內外 隔絕不通 如甲申十月事 外而卿宰諸貴家 皆派兵圍守 滿城奔竄屏跡 我國人不敢出頭 惟見日兵充斥 攔入人家 莫敢誰何 城中人皆束手望天 各營兵隊 舉皆逃散 所持器機 則皆爲日兵所奪 不知朝夕間有何禍變”

22) 위 자료, “日兵入據我軍各營 盡收器機 闕內入直官員 皆被驅逐 內人挾侍 武監留幾個外 一併趕出 日兵充斥禁中 彌滿至密 內外無辨”

派送”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영관급 무관 중에 일본군 5사단과 함께 평양으로 가서 청군과 전투를 지원해준 李斗璜(1858~1916)을 들 수 있다. 이두황은 동학농민군이 1차봉기할 때 양호초토영 중군으로 홍계훈 휘하에 있었는데 귀경한 뒤 장위영 참영관으로 일본군을 지원하는 일을 한 것이다.²³⁾ “그는 일단의 조선인 병사를 데리고 일본군 제5사단장 노즈(野津) 중장을 찾아가 참전시켜 줄 것을 간청해서 중군하게 되었다. 그는 일본군을 따라 평양까지 들어갔는데 그의 역할은 통역 및 정탐 활동이었다. 또한 그는 청군 병사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작업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한다.” 또 李軫鎬(1867~1943)가 주목된다. 그는 20대 후반 젊은 나이에 일본군이 훈련시킨 교도중대 중대장이 되어 그 지시를 따르게 되었던 인물이다.²⁴⁾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가 파견되었을 때 중로군과 함께 다니며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 소좌의 지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순무영 지휘부는 반일 분위기 속에서 운영이 되었다. 먼저 순무사 신정희가 일본과 협력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신정희는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했던 노인정회담 대표로 나가서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1833~1911)와 대립한 적이 있었다.²⁵⁾ 순무사로서도 일본과 협력할 인

23) 이두황, 『李斗璜翁追懷錄』, 1929.

강창일, 「이두황」 <http://www.bluecabin.com.ne.kr/split99/ldh.htm>

24) 국사편찬위원회, 「근현대인물자료」

2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三. 全羅民擾報告 宮闈內騷擾의 件 三 (9) 內政改革勸告에 대한 朝鮮政府의 反應. 일본공사가 외무대신에게 보낸 공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 나라 정부의 改革委員 申正熙 외 2명이 老人亭에서 회합했을 때의 議事錄이라 하면서 —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그들의 이익에 관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기재한 것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 외에 한 통을 같은 필기록이라 하면서 여러 곳에 배포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층 더 사실을 날조·무고했으며 심지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욕설을 퍼부은 것이 기재되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 어제 國分 書記生으로 하여금 申正熙 씨에게 가서 그 위원이 직접 썼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했으나, — 申氏는 그것을 한 번 본 후 절대로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의사록을 돌린 일이 없으며 단지 구두로 각 대신에게 復命했을 뿐이므로, 그것은 어떤 자의 악의에서 나온 것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추측컨대, 위의 두 통의 문서가 다같이 위원의 손에 의해 쓰여진 것이 틀림없다고 사료되며, 그들이 새삼스럽게 모른다고 꾸며대면서 발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위의 復命書を 일람한 老 大臣들은 申氏의 일처리

물이 아니었다. 조선 관찬자료나 일본공사관 문서를 보아도 일본공사가 순무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도순무사 신정희는 군사를 직접 지휘해서 전투현장에 가지 않았다. 동학농민군은 충청도와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무장봉기하였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으로 진압군을 집중시킬 수 없었다. 전국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을 상대하려면 경군을 이끌고 각지를 순회해야 하는데 그 경우 도순무사가 서울 도성에서 지휘 통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했다.

처음 계획에는 중군 허진이 진압군 지휘관으로 출전하고 선봉에 李圭泰를 보내는 것으로 구상했던 것 같다.²⁶⁾ 그러나 허진은 파견되지 않았다. 병인양요 당시 설치된畿輔都巡撫營에서는 프랑스군과 대적할 파견병대의 선봉을 중군인 李容熙가 맡아서 지휘하였다. 이 사례를 따르다면 1894년도 양호도순무영 중군 허진이 병대를 이끌고나가 통위영과 장위영 그리고 경리청 등 각 병대를 지휘해야 했다. 하지만 허진은 서울에 남아있었고, 선봉 이규태가 출전한 각 병대를 지휘하도록 했다. 그 까닭은 사료에 나와 있지 않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도록 파견된 경군 여러 병대의 하나인 통위영 병대를 지휘하는 영관 이규태가 선봉으로 경군 전체를 지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관군의 지휘권을 일본군 장교에게 넘겨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한다.

허진은 현직 경무사였다.²⁷⁾ 이런 지위에 있는 중군이 출전한다고 해도 일본군 장교가 지휘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경군 병대까지 지휘할 일본군 장교는 후비보병 제19대대의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 소좌였다. 병조참판을 역임한 현직 경무사가 외국군 일개 대대

숨씨가 좋다고 크게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26) 『先鋒陣日記』 10월 초 3일. “어제 양호도순무영의 초기에, “본영 별관 이규태를 선봉장으로 임명하여 통위영 병사 2개 중대를 거느리고 다음날 우선 공주·청주 등의 길로 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군은 대대군병을 거느리고 그 뒤를 이어 출발하도록 할 것입니다.”

27) 『대한제국관원이력서』

장의 명령을 받는 것은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었다.

더욱이 허진은 이노우에 일본공사가 대원군파라고 지목한 인물이었다. 대원군은 “동학당을 선동하는 비밀명령을 전하였을 때 전 경무사 李允用이 이를 정탐”하자 사소한 이유를 붙여서 “이윤용의 관직을 박탈, 자기 당 소속인 許璣를 기용해서 경무사로 삼았”다고 하였다.²⁸⁾ 대원군은 청일전쟁에서 청군이 승리하여 일본군이 축출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고 동시에 동학농민군의 재봉기를 부추겼다. 그 실상을 평양을 점령하고 청군진영에서 대원군의 편지를 찾아내 파악하였고, 또한 대원군의 측근들을 조사해서 ‘동학당을 선동’하기 위해 파견된 것을 일본 공사가 알고 있었다.²⁹⁾ 심지어 “동학당이 일본군의 군용 전신선을 절단하고 兵站部를 습격하고 상인과 인부들을 학살한 것이 모두가 정부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³⁰⁾ 당시 대원군을 권력에서 제거하는 것이 이노우에 공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는데 대원군파인 허진이 양호도순무영 중군이 되어 경군 파견병 전체를 지휘한다면 일본군의 의도대로 동학농민군을 대적할 수 없을 것이었다.

양호도순무영의 도순무사 신정희와 중군 허진은 일본공사에게 모두 곱고러운 상대였다. 이노우에 공사는 무관 가운데 趙羲淵과 같은 인물은 ‘개화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으로 대원군이 해칠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였는데 신정희와 허진은 그 반대편에 있었던 있었다. 그런 까닭인지 군사에 관한 여러 문제는 주로 외무대신 김윤식을 통해 일본군의 요구를 강요해서 관철시키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이 진압을 담당할 일본군에게 조선 관군과 지방 관아에서 적극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종사관 정인표도 일본의 침략행위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시국 인식도 강화학과 학인 관료들이 가졌던 인식과 다르지 않았다. 정인표는 일본의 침략이 더욱 노골화되는 시기에 벼슬을 버리고 향리 진천에 칩거하여 은둔

2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5권, 五. 機密諸方往 二 (11) 井上公使의 大院君祖孫 箝策 內 申 및 東學黨 鎮撫를 위한 日兵增派 요청

29) 이상백, 「東學黨과 大院君」 『역사학보』 17, 1662; 배항섭, 「전봉준과 대원군의 ‘밀약설’ 고찰」 『역사비평』 39, 1997.

30) 위자료, 5권, 六. 內政釐革의 件 一 (4) 大院君의 東學黨 선동에 관한 件

생활을 한다. 평생 지조를 살면서 충북관찰사 직위로 회유해도 듣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순무영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구체적으로 활동한 사실은 일부밖에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순무사의 지침에 따라 동학농민군의 귀순과 재기를 막는 조치를 취하였다.³¹⁾

3. 申正熙의 對東學農民軍 認識 變化와 「巡撫使 榜示文」

도순무영의 설치 목적은 분명하였다. ‘匪類’의 소요를 종식시키고 각 군현을 按撫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신정희는 순무영의 막료를 선정하고, 경군 중 가용 가능한 병력을 동원해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임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방침을 정하고 전국에 「巡撫使 榜示文」을 전하도록 하였다. 국왕 고종이 내린 진압 명령이 있었지만 순무사의 지휘에 따라 강약의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정희가 동학농민군을 보는 시각은 고위 관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심지어 강화학파들이 보는 것과는 달랐다. 그것은 신정희가 동학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심문한 결과를 보고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신정희가 관직생활에서 가장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시기가 포도대장으로 사회 기강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때였다. 1877년부터 1894년에 이르기까지 18년에 이르는 동안 임오군란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유배된 시기를 제외하면 거의 매년 좌변포도대장이나 우변포도대장을 번갈아 맡거나 두 포도대장 직을 겸임해왔다. 이것은 당시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하는 것이었다.³²⁾

31) 신영우, 「한말 일제하 충북 진천의 유교지식인 연구」(『광무양안과 진천의 사회경제 변동』, 혜안, 2007 수록)

32) 朴銀淑, 「開港期 捕盜廳의 運營과 漢城府民의 動態」 『서울학연구』 V, 1995.

19세기 후반은 국정 문란에 따른 사회 혼란이 극심하였다. 삼정문란, 농민반란, 대원군의 개혁정책, 강화도조약, 임오군란, 청군 진주, 갑신정변 등이 잇달아서 일어났고, 자주 흥년이 닳쳐서 살기가 어려워졌다. 서울 도성에서도 사회 동요로 인한 각종 사건과 불법 행위가 발생하여 기강을 잡아야 했다. 포도대장 신정희는 치안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신정희가 관심을 집중시킨 대상의 하나가 東學이었다. 동학도들은 탄압 속에서도 교세가 증대되자 포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교조신원운동을 벌였다. 1892년 10월 공주집회와 11월의 삼례집회에 이어 교조신원을 요구하는 복합상소를 감행하였다. 1893년 2월에 많은 동학도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광화문 앞에 엮드려 상소를 올리는 형태로 시위를 했던 것이다.

포도대장의 관할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였기 때문에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벌어진 집회에 직접 개입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사태가 벌어지자 좌변포도대장 신정희는 이에 직접 대처해야만 했다. 포도청에서 실제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매천 황현은 “이때 성군관 유생들은 먼저 성토를 해야 한다는 여론을 내고, 신정희는 그들을 다 처형하여 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³⁾고 했다. 유생들의 반응은 매우 격했다. “저 무리들은 단지 잠자는 호랑이 정도일 뿐만이 아니니, 토벌하여 죽이는 일을 잠시라도 늦추어서는” 아니 되고, “속히 그 괴수와 일당들을 찾아내어서 죽여야 할 자는 죽이고 효수해야 할 자는 효수하며 효유해야 할 자는 효유”해야 한다고 하였다.³⁴⁾ 하지만 유생이 어떤 사태에 행동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할 수 있는 것은 국왕에게 상소를 해서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뿐이었다.

동학도들을 탄압하는 조치는 포도청에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정희는 포도청의 포도군사들을 동원해서 동학도들을 구속하거나 처벌하지 않았

33) 『梅泉野錄』 제1권, 下(1894년 이전) 「권봉희 상소의 배경, 동학도의 복합상소」

34) 『승정원일기』 1893년 2월 25일자; 『고종실록』 1893년 2월 25일자. 전라도 무주 유생 朴齊三 상소문.

다. 포도대장 신정희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포도대장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왕명도 없었다. 많은 수의 동학도들이 함께 모여서 포교를 허용해달라고 상소문으로 요구하는 것을 탄압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복합상소에 참여한 동학도들은 무사히 해산해서 돌아갈 수 있었다.

동학은 조선국가의 국정교학인 유학과 가르치는 내용과 행태가 달랐다. 경상도 일대에서 처음 발생할 때부터 유교지식인들은 邪敎라고 배척하였다. 더구나 사람들을 현혹시켜 동학에 꺾어들이는 사태를 우려하였다. 동학은 황건적이나 백련교도와 다름없기 때문에 난을 일으킬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동학도들은 동학과 유학은 다름없는 道라고 주장하였다. 복합상소문은 “동학은 유학과 대동소이하며, 최제우는 孔孟 등이 가르친 仁義禮智 위에 새로 守心定氣를 더 정했는데 그것은 誠敬信 三端으로 天地를 공경스럽게 받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유교지식인들은 聖人인 공맹의 가르침을 불변의 진리라고 보고 있는데 공맹이 깨우치지 못한 바를 최제우가 깨우쳐서 가르쳐주었다고 하였다. 오히려 “참된 선비가 거의 없고 虛文과 外飾을 숭상하며 경전을 표절하여 浮薄釣名하는 선비가 심중팔구”라면서 유생들을 공격하였다.³⁵⁾

이렇게 주장하며 소란을 피운 동학도들을 처벌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한 것은 刑政과 치안유지를 맡은 관리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공박이 빗발쳤다. 이런 상소가 계속되자 형조판서 金晩植, 참판 金貞圭, 참의 閔泳柱가 사직소를 올리는 한편 포도대장을 겸직한 한성판윤 신정희도 처벌을 자청하였다.³⁶⁾

고종은 담당 관리들을 문책하는 대신 동학을 탄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방침은 疏頭를 비롯한 우두머리는 서울 法司와 지방 관아에서 기한을 정하여 잡도록 하고, 이들을 따르는 자들은 禁斷하여 각자의 생업에 안주시킨

35) 신영우, 「1894년 왕조정부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51, 2009 참고.

36) 『승정원일기』 1893년 2월 26일자.

다는 내용이었다. 동학에 대한 탄압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해당 관장을 논책할 것이라고 엄명하였다.³⁷⁾

서울에서 법을 관장하는 관청은 형조와 의금부 그리고 사헌부와 한성부였다. 그리고 이를 실제 집행하는 물리력을 가진 관서가 포도청이었다. 형조참판과 판서를 역임하고 지의금부사와 한성 판윤 그리고 포도대장을 잇달아 맡거나 겸직하던 장신 신정희가 동학을 금지하는 중심이 되어야 했다.

동학도들은 광화문 복합상소에 이어 보은 장내리에 대규모로 취회하여 포교를 공인하는 주장에 덧붙여서 ‘輔國安民’과 ‘斥倭洋倡義’의 깃발을 내걸고 정치개혁과 외세배격을 요구하였다. 고종은 무력으로 동학도들의 집회에 대처하였다.³⁸⁾ 그래서 장위영 병대가 청주까지 내려가서 위력시위를 하자 동학도들이 해산하였다. 포도대장 신정희는 양호선무사 魚允中의 장계³⁹⁾에 따라 이름이 알려진 徐丙鶴 金鳳集⁴⁰⁾ 徐璋玉 등 보은집회를 주도한 동학의 주요 지도자들을 추적하도록 했다. 이들은 당시 치안에 가장 위협한 인물들이었다.

이 추적은 큰 성과를 가져왔다. 보은집회의 핵심으로 지목된 주요 지도자 5, 6명이 체포된 것이다. 그 중에 徐璋玉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장옥은 동학지도부의 거물이었다. 동학이 초기 탄압을 피하여 강원도와 충청도의 산골지역을 전전하며 교세를 확대해서 사람은 많았지만 敎門의 체계가 없었는데 불교 승려 출신인 서장옥은 조직이나 의식을 일신시킨 공로자였다. 교주 최시형은 그 때문에 매우 신뢰하였다.

서장옥은 은밀히 숨어서 포교하던 동학의 활동노선을 바꿔서 교조신원운동을 거쳐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으로 전환시키도록 하였다. 이른바 동학 조직을 정치활동의 무대로 생각하는 혁신적인 지식인들이 서장옥의 권유로

37) 위 자료.

38) 『고종실록』 1893년 3월 25일자. “총리대신이 時原任將臣, 兵曹判書와 더불어 회의하여 속히 그들을 제거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39) 위 자료, 1893년 4월 10일자.

40) 전봉준은 김봉집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이런 시도는 관헌의 기찰을 피하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동학에 입도하였다. 매천 황현은 봉기에 나선 동학도가 서포였고 교주인 최시형을 따르는 동학도가 법포라고 하였다.

동학 내부는 보은집회 단계에서 크게 두 계열로 분파가 이루어졌고, 김개남 손화중 전봉준 등 남접농민군을 이끌게 되는 지도자들과 가까운 서장옥은 급진계열을 대표하고 있었다. 1894년에 이르러 서장옥은 최시형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졌고, 최시형도 이들의 급진활동을 제어하지 못하였다.⁴¹⁾ 서장옥의 체포는 급진계열의 중심이 사라져버린 것을 의미하였다.

동학 내부에서 서장옥의 구속은 보통 큰 사건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포도청에서는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던 듯하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가 충청도에서 호응이 거의 없이 전라도 일대로 축소되었던 것은 서장옥이 활동을 못했기 때문이었다. 서장옥이 1차봉기를 지도했으면 충청도에 세력을 가진 급진계열에 의해 여러 군현에서 전라도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고, 당시 상황은 매우 다른 진전을 보였을 것이다. 서장옥은 1894년 6월 28일 혹독한 심문을 받은 뒤에 좌변포도청에서 풀려났다.⁴²⁾ 하지만 심한 취조 때문에 몸을 해쳐서 바로 활동할 수 없었다. 1894년 서장옥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신정희는 체포한 동학 지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학도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그 내용은 조선 내부사정을 염탐해온 일본 공사관이 신정희의 말을 탐지해서 남긴 기록⁴³⁾을 통해 알 수 있다.

나는 작년부터 東學黨을 잡기 위해 힘을 다 했고 이미 그중 주요 인물 5, 6명을 잡아서 囚禁중이다. 그리고 나는 여러 번 그들을 심문해 보았다. 그들의

41) 『聚語』 宣撫使 再次狀啓. 서병학이 어윤중에게 한 이 말이 그 사정을 보여준다. “호남에 모인 무리들은 겉으로 보면 비록 같지만 종류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문을 만들어 걸어놓은 것은 모두 그들이 한 것이고, 형편이 매우 다르니, 원한건대 공개서는 자세하게 살펴 처리하고 우리 무리와 혼동하지 말고 옥석을 구별하십시오.”

42) 조경달, 1993 「1894년 농민전쟁에 있어서 동학지도자의 역할」 『역사연구』 2.

4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권, 三. 諸方機密信 一, (22) 東學黨에 관한 두 大將의 직접 대화 「좌포도대장 겸 호위부장 신정희씨의 直話」. 이 보고서는 양력 1894년 5월 16일 작성된 것으로서 음력으로는 4월에 탐지한 내용이다.

말로는 따로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 목적하는 바는 지방정치의 개량을 요구함에 있었으며 결코 세상사람들이 지껄이는 것과 같은 요상한 술법이니 종교이니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말하는 바로는 '우리는 이름을 기록한 보책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연 인원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아득해서 알 수 없다. 요컨대 지방 관리의 폭정에 신음하고 울바르지 않은 죄명을 얻게 된 사람이 官民 구별할 것 없이 모두 와서 이에 합세하였고 그 주장하는 바는 公明하게 지방정치를 개혁해서 무고한 백성을 이 비참한 재난에서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요점은 동학도들은 '지방정치의 개량'을 바라고 있고, 폭정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官民 구별할 것 없이' 합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학의 술법이나 가르침보다 지방정치를 개혁해서 '무고한 백성을 이 비참한 재난에서 구하는 것'이 동학도들의 목적이라는 내용이었다.

신정희가 동학이 일어난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명쾌했다. '기강이 점차 무너지고 풍속이 크게 문란해져서 저들 지방관리라는 자는 목민에 힘쓰지 않고 탐학을 일삼아서 이에 민요가 무리져 일어나 현재는 온 8도에 거의 편한 날이 없다.'고 하면서 '지방제도를 크게 혁신하고 여기에 기강을 바로 잡고 풍속을 규정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동학당을 진멸하는데 마음과 힘을 다 하여도 도저히 그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문제는 정치에 있다는 판단이었다. 신정희가 핵심을 파악하고 있더라도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본공사관의 정보는 신정희의 속내까지 들여다보았다. "申氏는 무관이므로 내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비록 내정에 관여할 수 있다 하여도 현재 국정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은 閔氏一家이므로 도저히 그의 말이 채용될 가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申氏도 이를 개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장신 신정희가 동학의 가르침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신정희의 문집 『香農集』이나 詩卷44) 등이 발견되면 그의 글을 통해

44) 『梅泉集』卷一, 詩 戊寅稿, 題申香農元戎正熙詩卷後. 황현의 이 시를 보면 신정희는 1878년(戊寅年)에 시집을 간행한 것 같다.

알게 되겠지만 지금으로는 동학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한 가지 단서가 되는 것은 신정희와 이 시기에 가까이 교류했던 인사들이 이에 관해서 쓴 글이다. 비록 신정희의 글이 아니더라도 이를 보면 그의 생각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신정희는 무관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한 1849년부터 1895년에 이르기까지 47년 간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을 했다. 우선 훈련원을 비롯한 여러 병영에서 요직을 맡아서 활동했을 때 만난 무관들이 있었고, 30대에 들어와서 9년 간 40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승지에 임명되어 당대의 유능한 인재들을 승정원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다. 40대 중반부터는 60세가 넘어서까지 포도대장으로 포교들의 기찰활동을 감독했으며, 장신이 된 뒤에는 휘하에 당대의 무관들을 지휘하였다. 형조판서와 공조판서 그리고 한성판윤과 내무독관을 맡아 국정 of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관직을 역임할 때 만난 인물들이 신정희에 관해 쓴 글은 찾기가 어려웠다.

신정희에 관해 쓴 글은 많이 있었겠지만 그중에서 지금 많이 남아있고 주목되는 것이 이른바 강화학파들이 쓴 글이다. 아버지 申櫨 대장이 茶山 丁若鏞과 秋史 金正喜의 문하에서 수학했던 학식이 높은 儒將일 뿐만 아니라 전권대관으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을 때 秋琴 姜璋를 막로로 삼았던 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신정희도 당대의 뛰어난 학자들과 교류를 했던 儒將이었다. 신정희와 관련한 詩를 짓거나 글을 남긴 사람들, 그리고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로 주목되는 인물은 秋琴 姜璋, 寧齋 李建昌, 汶園 洪承憲, 綺堂 鄭元夏, 春耕臺 鄭寅杓, 梅泉 黃玟, 壺山 朴文鎬, 丹農 李建初, 滄江 金澤榮 등이다. 서울 정동에 있는 신정희의 저택 青春樓閣가 群賢이 모이는 장소였다고 하는데⁴⁵⁾ 이들이 그 주요 인사들이었다.

이들 중 동학과 동학농민군을 평가하는 명확한 글을 남긴 사람이 이견창과 황현이었다. 동학은 사교라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였고 언사도 매우 강경하였다. 이견창은 「請勦邪匪附陳勉疏」에서 1893년 봄 魚允

45) 『韶濩堂詩集』 定本卷二, 癸未稿, 上香農中大將軍 正熙, “青春樓閣萃群賢 橫槩吟詩月滿天 馬隊卽今非講肆 不堪回首白門前。公家今爲洋使館”

中이 보은집회를 해산시키러 가서 올린 장계를 보고 이를 매도하였다. 亂黨을 民黨이라고 不正하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었다. 수만 명이 둔취해서 깃발을 세우고 축성을 한다면 이는 亂民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誅戮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⁴⁶⁾ 황현은 동학은 유언비어를 전파해서 커진 邪學에 불과하고 복합상소도 '한 번 농락을 부러보자는 속셈'으로 벌인 것이었는데 고종이 효유해서 물러가게 했기 때문에 당시의 양반 유생들의 언론은 울분에 쌓여 있었다고 하였다.⁴⁷⁾ 황현이 1894년 동학농민군의 봉기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은 더욱 강경하였다.⁴⁸⁾ 모든 동학농민군 가담자들은 제거 대상이었고, 관군이나 민보군이 동학농민군을 학살하는 轉聞을 당연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신정희가 포도대장으로 동학 지도자들을 추적했을 때에는 이들과 생각이 다름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복합상소 때 강격한 주장을 편 것이라든지 동학당을 체포하여 강력히 처벌했던 것은 그런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기강을 잡으면 민요가 그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동학지도자를 체포해서 이들의 세력 확대 배경과 동학농민군의 봉기 원인을 파악한 뒤에는 생각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의 혁신 없이는 빈발하는 민요를 막을 수 없다고 절감했다는 것이다.

신정희의 활동을 보면 1893년까지 동학도들의 불법행위를 금지해서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강화학과와 같은 생각이었다. 사교로 본 동학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당시 상소문을 올리던 유생들과 동일하였다. 1894년 봄 동학농민군이 무장봉기했을 때에도 강력히 진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주시하였다.

하지만 동학도들을 모두 진멸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강화학과와도 견해가 달랐다. 제야 유생이나 문관의

46) 『明美堂集』 卷七, 「請剿邪匪附陳勉疏」

47) 『梅泉野錄』 제1권, 「동학도의 복합상소」: 신영우 「한말 일제하 충북 진천의 유교식인 연구」 『광무양안과 진천의 사회경제변동』, 해안, 215~217.

48) 金容燮, 「黃琦(1855~1910)의 農民戰爭 收拾策」, 1984(『역사와 인간의 대응』, 한울에 수록).

강경한 言辭와 실행력을 가진 實權 武將의 판단이 같을 수는 없었다. 그는 무장봉기를 선동한 동학지도자와 이에 가담한 백성들을 구분하였다. 이른바 수괴는 처벌하고 단순가담자는 효유해서 귀순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었다.

신정희는 현종 철종 고종 三朝에 걸쳐 사환했던 무장으로서 왕조와 국가의 안정을 무엇보다 중시하였다. 고종도 신정희의 헌신에 기대하고 있었다. 1894년의 혼란기에 신정희는 주목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지만 신정희는 이때 전권을 장악한 순무사가 아니었다. 일본군이 개입해서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는 병력을 파견하였는데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였던 것이다.

4. 巡撫營 先鋒 李圭泰와 일본군 간의 갈등

일본군과 일선에서 협력해야 하는 지휘관은 선봉 이규태였다. 이규태는 1862년에 무과에 급제해서 선전관을 거쳐 訓練院 主簿·判官·僉正을 맡고 都總府 都事·戶曹 佐郎·都總府 經歷을 역임한 전형적인 군 지휘관이었다. 청주 영장과 內禁衛將 등을 지낸 다음 경리청과 장위영에서도 참영관과 정영관으로 병정들을 지휘한 바 있었다.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파견된 주요 병대를 지휘해본 경험이 있는 적임자였다. 그런데 선봉 이규태도 일본군과 잘 협력이 되지 않았다. 사실상 일본군에 예속되어 굴욕을 받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선봉 이규태가 통위영 병대를 지휘하여 도성을 나가 수원에 머물러 있던 초기인 10월 12일에 순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령이 왔다.⁴⁹⁾

49) 『巡撫使各陣傳令』傳令先鋒將李圭泰, 甲午十月十二日.

전령 선봉장 李圭泰에게 보냄

일본군사가 내일 출발하려고 한다. 잠시 수원부에 머물러 있다가, 그 일행이 도착하기를 기다려서 서로 의논하여 노정을 확실히 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1894년 10월 12일 (印)

兩湖都巡撫使 (花押)

이미 출동한 경군 병대의 지휘관에게 행군을 수원에서 멈추고 일본군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서 행군 노정을 확정하도록 한 것이었다.⁵⁰⁾ 이것은 독자적으로 행군도 하지 못하게 한 명령이었다. 실제로 이규태는 수원에 머칠 간 수원에 머물러서 일본군이 오기까지 기다렸다.

그뿐 아니었다. 선봉에게 일본군과 만나서 지시를 받는 것은 물론 숙소와 음식 공급까지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⁵¹⁾ 이에 따라 이규태는 행군로에 있는 지방관아에 지시해서 숙소와 음식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 비용은 조선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었다. 순무영에서 내린 명령에는 '두 나라의 큰일에 관계되기에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는

50) 『巡撫先鋒陣騰錄』 1894년 10월 15일자.

51) 『巡撫先鋒陣騰錄』 1894년 10월 17일자. "일본 군대가 내일 평택읍에 숙소를 정하려 할 때 음식을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 기록에 의거하여 하나하나 미리 준비하였다가 군대가 읍에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즉시 물품을 올리도록 하라. 시간에 압박하여 구차하고 궁색한 폐단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관가의 아전과 향임에게 엄하게 명령하라. 이 일은 두 나라의 큰일에 관계되기에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해서 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별도로 각별히 명령하라."; "선봉진이 보고하는 일입니다. 휘하의 각 소대와 어제 도착한 일본 군대가 우선 무사히 숙박하였고, 오늘 진시 경에 함께 출발하여 진위에 도착하여 유숙할 계획이므로 사정을 보고합니다."; 직산 겸 평택현감과 신창현감 겸 운량관에게 보내는 감결. "내일은 마땅히 成歡站에서 유숙할 것이니 이를 거행하도록 하라. 일본 군대도 또한 마땅히 모두 주둔하여 유숙할 것이니, 숙소와 물건을 마련해 올리는 일은 後錄에 의거하여 날날이 준비하도록 지시하여 때를 당하여 황급해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관군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각 酒幕에 나누어 맡겨 후시라도 뒤섞어 어지러워지는 일은 없게 하라. 이것은 모두 두 나라의 군사업무와 관계되니 하나라도 후 잘못 접대한다면 저절로 법률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 각별히 더욱 두렵게 생각하고 조심하여 삼갈 것이며, 감결이 도착한 일시는 신속하게 보고하라." "숙소는 관아나 민가 중에서 몇 백 명을 수용해서 접대할 수 있는 곳을 골라서 군불을 때놓고 기다려서 관병(官兵)과 일본 군대에게 각각 그 처소를 나누어 정해주어 혼잡하게 탈이 생기는 일이 없게 하라."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10월 17일 일본군에게 공급할 품목을 보면 쌀감과 말먹이까지 포함되었다.

日本 군대에게 마련해 올릴 물품 품목

백미(白米): 매 끼니마다 市場 말로 15말

큰 소 뒷다리: 1개

무: 300개

닭과 계란 등 요청하는 것에 따라 올릴 것

김치: 2동이

간장: 1동이

장작(長斫): 3바리

말 먹일 짚: 3바리 방사(房舍)가 있으면 그 옆에 둘 것

먹을 물은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릴 것

경군의 위상은 일본군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격하되었다.

경군 각 병대는 일본군과 동행해서 남하하도록 하였다. 이규태는 공주공 방전에 참여해서도 일본군 서로분진대를 지휘한 모리오 가이찌(森尾雅一) 대위의 지시도 따라야 했다.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경군 파병 병대 지휘관 이규태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선봉 이규태는 일본군과 관련한 문제를 도순무사 신정희에게 공식문서가 아닌 私信으로 알리고 있다.⁵²⁾ 이규태가 도순무사 신정희에게 알린 불만 내용은 몇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일본군이 경군의 진퇴를 결정해서 주는 불편이다. 여러 군현에서 급보를 보내와도 경군을 즉각 파견하지 못했다. 일본군이 특정한 지역에 머물고 있으라고 하면 하는 일이 주둔하고 있어야 했다. 그동안에 할 일이 없는 병사들이 민폐를 끼치는 일도 일어나고 있었다. 급하게 출동해야 할

52) 「先鋒陣上巡撫使書(附雜記)」

경우 미나미 소좌 등 일본군 장교에게 간청해야만 했다.⁵³⁾

둘째는 탄환을 통제받는 일이었다. 일본군은 빼앗아간 무기 일부를 돌려줘서 경군이 출진할 수 있도록 했으나 탄환은 철저히 통제해서 전투 때마다 경군의 탄약 사용량까지 파악하였다. 이규태가 도순무사 신정희에게 직접 탄환 공급을 요청했어도 순무영이 보유한 탄환이 없었고, 또 일부 급히 마련하여 보내준 탄환도 일본군이 가로채서 제대로 주지 않았다.⁵⁴⁾ 일본군이 준 탄환 중에는 크기가 다른 것이 있었다.⁵⁵⁾ 이런 탄환을 사용하면 명중시키기 어려웠다.

셋째는 일본군이 동학 가담 혐의를 받는 지방관들을 함부로 체포 고문하는 문제였다. 특히 미나미 소좌가 維鳩에 사는 前珍山郡守 吳鼎善을 체포해서 제재를 가한 것은 국권을 유린하는 심각한 문제였지만 경군 지휘관이 이를 제어할 수 없었다. 이규태는 외국군대가 들어와서 지방관을 감금해서 심문하거나 고문을 하는 것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넷째는 체포한 동학농민군 지도자를 일본군이 탈취해가는 일이었다. 일본군은 여러 차례 '거괴'를 체포하면 일본공사관에 넘겨서 문초를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강력히 요청하였다. 김개남을 전라감영에서 처형한 뒤에는 '포로 탈취'가 더 심해졌다. 관군이 붙잡은 전봉준과 손화중 그리고 최경선은 일본군이 빼앗아갔다. 이규태는 '우리의 臣民'이 국법에 의해 처결되지 못하

53) 「上巡撫使書」

54) 위자료, “지금 탄환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큰일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본군 진영의 標를 얻었으나 실어를 때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근심스럽습니다. 그 사이에 공주와 천안에 있는 탄환을 얼마간 들여다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썼으나 지금은 적합한 彈子が 없기 때문입니다.” “탄환의 일은 지금 가부간에 말씀이 없으신데, 요청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돌아보니 어찌 할 수가 없고 실제로 변동할 방도가 없습니다. 日館(일본공사관)에 이러한 탄환이 없다면 말할 수가 없고, 지금 청나라 사람이 남긴 탄환으로 비록 구차하게 사용하지만 쓰임에 맞추기가 어려우니 이것을 어찌하겠습니까?”

55) 위 자료, “청나라 사람이 남긴 탄환이 천안과 공주의 2개 읍에 몇 만개가 있다고 하나 애초에 모양이 맞지 않아 있는 것이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할 만합니다. 竹山수령이 얻은 5~6상자는 모슬총에 사용하였습니다. 統衛營은 늘 70~80개를 사용했으나 經理廳은 10여 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일본인이 준 모양이 맞지 않은 탄환을 잠시 나누어 주었을 뿐입니다.”

고 일본군이 구금하는 것을 불만으로 생각하였다.

다섯째는 선봉 이규태가 순무영에서 파견한 병대 전체를 통제하는 현지 지휘관이었는데 교도중대는 미나미 소좌가 지휘하는 일본군 중로분진대와 동행했기 때문에 논산에 이르기까지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⁵⁶⁾ 그래서 군수 물자를 보낼 때도 확인이 안 되었다. 이규태는 일본군과 같이 있을 때는 지휘관으로서 실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군 서로분진대를 지휘했던 모리오 대위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관군이나 관리들까지 동학당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심지어 충청감사 朴齊純까지 동학당과 내통했다고 의심하였다.⁵⁷⁾ 공주공방전 직후 즉시 추격을 하자는 모리오 대위의 지시를 거부한 이규태는 더한 의심을 받았다. 미나미 소좌는 이규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서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고 혹 실례될지도 모르지만, 小官이 한 마디 해야 할 일이 있다. 미리 이같이 양해를 구해놓고 이제부터 公州城이 여러 겹 포위되었을 당시의 성 안의 상황을 설명하겠다. 처음에는 사수하라는 명령을 지켰지만 적의 세력이 수그러지는 징후가 보이자, 성 안에서는 치고 나와 격퇴하지는 의견이 생겨, 곧 의결하여 담당 부서를 각각 정했다. 그런데 막상 치고 나올 때에 즈음하여, 統衛兵 隊長은 앞에서 이 협의에 찬동하고 각 장교와도 부서를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대의 지휘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우리군대 장교들은 대단히 분개했다. 중대장 森尾 大尉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휘관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홀로 성 안에 겹겹이 포위되어 있어서 지휘관의 명령을 받을 길이 차단되어 위급존망의 형편이므로 임기응변 책을 취할 도리 밖에 없다. 네가 만약 억지로 우리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강제로 너를 우리 지휘

56) 위 자료, “教導兵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합세해서 함께 나가도록 하는 것은 뜻대로 하기 어려울 듯하여 매우 한탄스럽습니다.”

57) 미나미 소좌는 「東學黨 征討略記」(駐韓日本公使館記錄 6권, 二, 各地東學黨 征討에 관한 諸報告)에서 “監司는 내통하지도 않고 또 가담하지도 않은 자라는 內命이 있어서 그가 東學徒와 조금도 관계가 없는 자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모리오대위의 보고를 통해 파악했던 내용이다.

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더 힐문하여 이르기를, “네가 정녕 우리의 지휘를 따를 의사가 없다면 우리 역시 고려해 볼 바가 있다. 최후의 決答을 듣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그가 비로소 겨우 우리의 명령을 따르겠노라 했다. 그러나 그 얼굴색은 몹시 불만에 찬 듯 했다.

지휘권을 위임 받은 미나미 소좌도 아닌 일개 중대장이 통위영 장위영 경리청 3개대대 규모를 지휘하는 이규태에게 협박까지 한 것이다.⁵⁸⁾ 이런 사실을 도순무사 신정희에게 보고⁵⁹⁾하였으나 신정희도 대안이 없었다.

미나미 소좌는 12월 2일(양력 12월 28일) 이노우에 공사에게 지방관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규태를 가장 심한 말로 비난하였다.⁶⁰⁾ “동학당 토벌선봉군대장 李圭泰 위의 사람은 열렬히 동학당에 가담한 사람이며 모든 처사가 애매모호하고 지휘관의 명령을 왜곡, 이제까지 한 번도 전투 일선에 나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전투 중에 자기 편의대로 숙소에 돌아오는 등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며 군대에서는 해로운 인물이므로, 대장 이규태를 소환하시어 빨리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규태를 ‘열렬히 동학당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정도였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요청을 받은 이노우에 공사는 김윤식 외무대신에게 즉각 강력히 이규태의 소환을 요구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고 도순무사 신정희에게 전달했을 터이지만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58) 그후 이규태는 마지못해 일본군에 협조하였으나 통위대 병사만 내보내고 직접 나가서 지휘를 하지 않아 또 일본군의 불만을 샀다.(위 자료, “이 위급한 때에 병사만을 내보내고 자기 자신은 안에 숨어 있으니 무슨 용무 때문인지는 몰라도 將帥로서의 本職을 헛되게 하고 있음이 아닌가? 비록 병사를 내보냈다 한들, 이를 지휘하는 上官이 없으면 이것은 오합지졸일 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59) 「上巡撫使書」, “일본인이 巡營을 꾀박한 일은 이미 封章을 했고 또한 적어서 의정부에 보냈으므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廢務하고 모든 일에 갈등을 빚으니 한탄스럽습니다. 일본인이 이처럼 거리낌 없는데 小人에게 있어서는 어찌 말할 게 있겠습니까?”

6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五.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查派遣의 件 二 (30) 東學徒鎮定에 關한 諸報告 및 意見具申 2) 意見具申.

나간 경군 지휘관을 도중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신정희는 이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도순무사 신정희에 대한 이노우에 공사의 불만이 이 때문에 가중되었을 것이다.

미나미 소좌가 지시를 잘 따라서 선호했던 인물이 장위영 병대를 지휘한 李斗璜이었다. “이에 반해 壯衛隊長 같은 이는 쳐 나아가기로 한 의논이 있자 처음부터 한마디의 반대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말하기를 어떠한 지휘라도 오로지 그 명에 따를 것이라 하였다. 이 사람은 본시 竹山府使로서 이름은 이두황이라 했으며 우리 군대의 지시에 잘 따랐다. 經理營兵의 隊長도 역시 가타부타 한 마디 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지휘에 따른다고 말하였다.”

이두황은 1894년 4월 홍계훈이 장위영과 沁營 군사를 지휘해서 진압군을 보낼 때 隊官으로 전라도에 파견된 인물인데 일본군이 파견되어 청군과 평양성 전투를 벌일 때 노즈 미치즈라(野津道貫) 소장의 5사단을 따라가 정탐 지원을 한 바가 있었다.⁶¹⁾ 죽산부사로 임명되어 장위영 병대를 이끌고 진압에 참여하였는데 보은 장내리와 목천 세성산의 동학근거지를 초토화시키고 충청도 서해안 일대의 동학농민군을 제압한 다음 공주공방전 이후 논산전투부터 일본군과 합류하고 있었다.

도순무사 신정희는 차선택을 선택하였다. 이두황도 선봉으로 또 임명하는 방안이었다. 이규태는 좌선봉으로 전과 같이 통위영을 이끌며 경리청과 교도중대를 지휘하도록 했고, 이두황은 우선봉으로 임명해서 그 지휘에서 벗어나게 한 조치였다.⁶²⁾ 원평과 태인전투 이후 대규모로 집결한 동학농민

61) 한국근대인물자료 이두황. “日淸戰爭시 일본 장교가 훈련시킨 2개 한국 兵隊 중 제2대대장으로 野津 제5사단장을 隨行. 일본군과 함께 평양에 가서 산하의 형세를 살피거나 敵情을 염탐”

62) 「순무사각진전령」 傳令左先鋒 李圭泰에게 보냄(1894년 11월 26일). “이번 11월 25일 임금께 ‘적의 무리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선봉 이규태를 좌선봉으로 임명하고, 장위영 영관 이두황이 여러 차례 전공이 있으므로 우선봉으로 임명하여, 이들에게 방면을 나누어 섬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 임금께서 전교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셨다. 이에 전령하므로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통위영·경리영·교도소 3진의 장관 이하 병정들을 그대로 거느리고 전과 같이 절제하며, 우선봉과 함께 자세히 논의하여 담당할 방면을 나누고 날자를 정해 적을 섬멸하라.”

군과 전투를 하지 않고 각 군현의 동학지도자를 체포하거나 추적하는 단계에서 이런 조치는 별 의미가 없었다. 경군 각 병대는 소규모로 나누어 일본군 중대나 소대로 이루어진 지대와 전라도 남단을 순회하고 있었는데 미나미 소좌가 행군과 활동까지 일일이 지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군의 실제 지휘관은 미나미 소좌와 각 지대의 일본군 장교였다. 이두황은 장흥을 비롯한 전라도 남단을 다니며 동학농민군 참여자를 대규모로 체포하여 학살하는데 어떤 제약도 받지 않았다.

도순무사 신정희는 「순무사 방시문」에서 약속한대로 귀순한 동학농민군을 생업에 안정시키는 것을 강조하였다. 여러 차례 전령을 보내 민간에 해를 입히지 말고 백성들이 생업에 안정되게 종사하도록 만들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도순무사의 지시는 말단에서 이행되지 않았다. 동학농민군 가담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전라도 남단에서 대학살을 지휘하던 일본군은 그 책임을 경군과 민보군에게 돌렸다. 그래서 진압이 완료되기도 전에 소모사와 토포관 등 임시군직을 철폐하라고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것은 일본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양호도순무영을 혁파하는 것을 의미했다. 동학농민군이 패산한 뒤에 민심안정책이 필요했으나 일본공사는 꺾끄러운 상대였던 신정희가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먼저 조치한 것이 도순무영을 혁파하고 軍務衙門의 지휘를 받게 한 것이었다. 도순무사 신정희는 12월 23일 江華留守에 임명하는 형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⁶³⁾ 중군 허진도 같은 날 通津府使에 좌천되어 역시 도성을 떠났다. 이노우에 일본공사의 강요가 아니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12월 27일에는 참모관 소모사 소모관 토포사 별군관 등 임시군직도 혁파하였고, 각지에서 활동하던 민보군도 해산시켰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잔무는 산적해 있었는데 이는 일본공사에게 잘 협력해왔던 조희연을 군무대신에 임명해서 수습하도록 하였다. 신정희에게 내린 강화유수 교지의 내

63) 『고종실록』 1894년 12월 23일자; 『승정원일기』 1894년 12월 23일자.

용은 이례적인 것으로 당시의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을 암시하고 있다.⁶⁴⁾

강화유수로 부임해서 근무하던 중 1895년 6월 18일 향년 63세로 세상을 떠났다.⁶⁵⁾ 이후 「甲午軍功錄」에 올랐다.⁶⁶⁾

64) 周官에는 다스리는 자리를 중히 여겨 이 직임을 설치하여 울타리로 삼았고, 宋 나라에서는 유수의 자리를 높이 여겨 이에 선발되는 자는 문과 무를 겸비했다. 어떤 이가 이에 합당하겠는가. 예부터 적임자를 찾기 어려웠었다. 오직 경은, 한 몸이 이 땅의 안위를 깊어 지고서 명망은 태산과 북두성처럼 중하다. 조상의 발자취를 이어 백성들을 편히 다스리는 태평의 시대를 누리고, 아비의 학업을 이어 군사를 운용하는 능력을 겸비하였었다. 詩書와 禮樂을 좋아했던 짙 나라 대부인 郤穀과 같은 높은 풍도를 지녔으며, 雅詩를 부르며 投壺를 즐겼던 東漢의 장군인 祭遵보다도 넓은 도량을 지녔었다. 사방에 시혜해 보고서 내가 그대의 업적을 가상히 여기고 있으며, 삼대 왕을 거치면서 그대의 계책은 능히 장하였었다. 생각건대, 이 커다란 강화도는 참으로 바다를 방비하는 요충지이다. 金城湯池의 장엄한 형세는 하늘이 내린 험준함이고, 성곽과 해자는 수륙이 교차함이니 나라의 방패막이 되는도다. 眞殿을 風雲이 길이 보호하고 있으니 이곳은 제2의 서울이라 불리우고, 명산에 史籍이 깊이 보관되어 있으니 세상에서는 外閣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곳을 맡김에 있어 매우 신중히 하여, 반드시 명망과 실재를 겸비한 자를 등용해야 한다. 이에 경에게 行江華留守 兼 鎮撫使를 제수하노니, 경은 힘써 훌륭한 계책을 펼쳐 공경히 총애어린 명에 따르라. 두루 진무하여 속히 비적을 소탕하고, 깨끗이 물리쳐 속히 성과를 보고하라. 여러 해 많은 군사를 거느리면서 나만 수고롭다는 탄식을 하겠지만, 대대로 이곳을 맡아 다스림은 또한 보기 드문 영광이로다. 나라의 방비를 믿고 맡기는 것을 조정의 노성한 신에게 의지하노니, 이목을 모으는 깃발과 북소리에 성곽의 모습은 화려하게 거듭날 것이다. 아아, 신하를 아는 이는 임금만 한 이가 없으니, 생각건대 경이 아니면 불가하다. 백성이 있고 사직이 있으니, 자, 그대는 가서 공경히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국경을 지키고 백성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아, 어찌 이리도 늦게 오셨는가'라고 노래하게 하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는 바이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65) 「官報」 4746호, 隆熙 4년 8월 2일. 시호는 靖翼, 武肅, 孝靖 중에서 정익으로 결정되었다. 故判書申正熙諡號望 靖翼〔寬樂令終曰靖思慮深遠曰翼〕 落點 武肅〔折衝禦侮曰武執心決斷曰肅〕 孝靖〔慈惠愛親曰孝寬樂令終曰靖〕

66) 영관 이상 군공을 인정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巡撫使 申正熙 從一品 卒逝 / 中軍 許璉 從二品 / 軍部協辦 權在衡 從二品 / 從事官 鄭寅杓 六品 / 左先鋒 李主泰 三品 卒逝 討平兩湖, 軍民咸頌. / 郡守 成夏永 三品 牛金之役, 挺身先登. / 前巡撫參謀官 注書 朴鳳陽 九品前主事 倡義守城殺賊無算 / 前經理領官 具相祖 三品參領 松山·牛金, 屢著戰功. / 前統衛領官 張容鎮 三品參領 牛金·論山, 屢著其功 / 前壯衛領官 元世祿 三品寶城郡守 屢著戰功, 畿湖賴安. / 前經理隊官 李相德 四品副尉 公州·舒川, 殲賊數百 / 前壯衛領官 尹喜永 三品 連戰兩湖, 殺賊數百. 前寧海府使 申泰休 三品參領 巡哨領邑, 勦捕群匪.

5. 맺음말

양호도순무사 申正熙의 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1차사료가 되는 자료는 순무영의 일체 공문서를 모아놓은 臚錄이 되어야 하는데 이 같은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한창 활동을 하는 중에 갑자기 해산이 되어서 동학농민군 진압을 마무리하는 여러 조치는 말할 것도 없고 등록조차 만들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巡撫先鋒陣臚錄』 『巡撫使各陣傳令』 『兩湖右先鋒日記』 등 파견병대에서 작성한 자료들이 1차사료가 되고 있다. 신정희의 문집 『香農集』도 찾지를 못해서 신정희와 교류했던 인사들의 문집 등을 통해 단편들을 확인하는 정도이다. 그런 까닭에 신정희의 활동과 신정희의 글을 통해서 정리해야 하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정희는 증조부 申鴻周와 아버지 申櫛을 이어 將臣이 된 儒將으로서 고종의 신임을 받아 오래 동안 捕盜大將을 역임해서 사회 기강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주변에 당대의 재사들이 모여들었다. 정동에 있던 저택은 이견창 홍승헌 황현 김택영 박문호 등 뛰어난 문장가들이 모여서 교류를 했던 장소였다. 이들 중에는 강직하기로 이름난 강화학파들이 있었는데 詩文을 보면 매우 가까이 지냈던 것을 알 수 있다.

강화학파들은 동학을 부정 일색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인식과 신정희의 견해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동학도들의 집회와 동학농민군들의 활동을 '지방정치'의 개량을 요구해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서장옥 등 동학지도자를 심문해서 동학도들을 보는 인식이 바뀐 것이었다. 동학도들의 집회에 대해 정계의 원로들은 설유해서 해산시켜야 한다는 온건론을 펴고 있었다.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던 신정희는 이러한 온건론에 동조하게 되었다.

1894년은 조선의 武將으로서 건드릴 수 없는 수모가 계속된 해였다. 이해 봄 지방농민들의 반란에 불과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지 못했다. 고종이 淸軍을 차병한 것은 관군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 것이었다. 가장 큰 사건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기습 점거한 것이었다. 이것은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빠진 사실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나 관군은 일본군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였다. 일본에 대한 저항은 동학농민군의 재봉기로 시작되었으나 관군은 일본군의 보조역할을 하면서 진압에 가세해야 했다. 조선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병기를 도둑질하여 공적인 재물을 약탈하고 성을 공격하여 관리를 해치는 등 반역' 행위를 하는 동학농민군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신정회는 관군을 동원해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책임을 맡은 임시 최고 지휘관인 양호도순무사에 임명되었으나 파견 병대의 지휘권은 일본군 후비 보병 제19대대의 대대장인 미나미 고시로 소좌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일본군에게 무기와 탄약을 통제받고 지휘권까지 장악당한 경군 파견 병대의 위상은 격하되었다. 일본군은 전투력이 미약한 경군을 '구사해서' 동학농민군과 전투를 벌여나갔고 우금치와 연산 그리고 원평과 태인 등 여러 지역에서 승리하였다.

양호도순무영의 도순무사 신정회는 일본이 내정개혁을 강요했던 이른바 노인정 회담의 조선측 대표로서 이노우에 공사와 격론을 벌인 반일 武將의 상징이었다. 중군 허진은 淸軍이 일본군을 물리치기를 기대했던 흥선대원군의 일파로서 경무사에 임명된 인물이었다. 도순무영이 파견한 경군 병대를 이끌던 선봉 이규태는 일본군 장교에게 지휘 받는 것을 거부해서 기피 대상이 되었다.

내정 간섭을 자행하던 일본공사 이노우에는 양호도순무영을 해산시켜도 동학농민군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일본공사의 강요에 의해 12월 23일 도순무사 신정회는 군권을 상실하고 江華留守로 전임되었다. 중군 허진도 통진부사로 좌천되어 도성을 떠나야 했다. 아직 동학농민군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시기에 순무영을 해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신정회는 「순무사 방시문」에서 동학농민군 참여자가 귀순하면 보호해주고 생업에 안정시킨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다. 전라도 남단에서 별

어진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학살은 이런 와중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조선정부의 마지막 수습책임은 일본에 적극 협력하던 군무대신 조희연이 맡게 되었다. 조희연은 일본군의 의도대로 동학농민군을 철저히 진압하는 것에 협력하였다. 그리고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군을 위무하기 위해 군무대신 조희연은 문무관료 20여 명을 이끌고 대련을 방문하였다.

(원고투고일 : 2011. 9. 15, 심사수정일 : 2011. 11. 10, 게재확정일 : 2011. 11. 18)

주제어 : 신정희, 순무영, 양호도순무사, 동학농민군, 일본군, 대원군, 이규태, 일본군 장교와 총돌, 순무영 해산, 강화유수

<ABSTRACT>

The Conflict of Military High Command of Sunmuyeong and The Japanese Army

Shin, Young-ou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aspect of the General Shin Chung-hee(申正熙)ʼs career and activities in 1894. He was Commander in Chief of Sunmuyeong(巡撫營) suppressed the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Army. His father Shin Heun(申櫨) and great-grandfather Shin Hong-ju(申鴻周) were well known in the military field as well. They were the famous genera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s a commander in Chief of Sunmuyoung, Shin Chung-hee was placed in a difficult situation. First and most importantly, the Japanese was captured Gyeongbokgung(景福宮) by the army where the king lived and interfered in the domestic affairs of Joseon Dynasty.

The second serious problem was the Donghak Peasant Army rose in arms in all parts of the country. They raised their standard before embarking on the uprising. Their ultimate goal was to expel the Japanese out of the Joseon.

The high ranking government officials of the Joseon Dynasty, however, had been distrusted the Donghak Peasant Armyʼs activity and morality. The Donghak Peasant Army extorted money and food from the local yangban(兩班)s every day since spring, 1894.

Shin Chung-hee realized that the Donghak Peasant Army wanted to reconstruct the state and transform society; on the other hand, as a general of the Joseon Dynasty, he had to ended the national disorder.

The staff officers of the Commander-in-Chief of the Sunmuyoung was

within the sphere of the Daewonkun(大院君). The Japanese hated Daewonkun.

The Japanese army got under arms like a breechloading rifle which was a very powerful new weapons. The regular army of the Joseon dynasty has a role as an assistant because the officer of the Japanese army take hold the right to command. Shin Chung-hee, the commander in Chief of the Sunmuyong, could not in the vanguard of the operation.

The Sunmuyeong and the Japanese Army were not on the same wavelength. Meanwhile, one of the chiefs of the Sunmuyeong, Lee Gyu-tae (李圭泰) came into conflict with officers of the Japanese Army. The Japanese army called on disband the Sunmuyeong. On December 27, the Sunmuyeong was dismissed and the General Shin Chung-hee was appointment to the Ganghwayusu(江華留守).

Key Words : Shin Chung-hee, Sunmuyeong, a Commander in Chief of Sunmuyeong,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Japanese Army, Daewonkoon, Lee Gyu-tae, Conflict with Officers of the Japanese Army, Dismiss, Ganghwayusu